



“봄이 왔수다”… 새철 여는 탐라국 입춘굿

내달 2~4일 사흘간 관덕정·목관아 등 도내 일원
입춘맞이는 시작… 거리굿·열림굿·입춘굿 진행
성안기행 서귀포도… 붉은 말의 해 휘호 퍼포먼스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 대표 전통 축제인 '탐라국 입춘굿'이 새봄을 연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에 따르면 '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이 '날 배롱 땅 움작, 봄이 들썩'이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사흘간 관덕정, 제주목 관아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린다.

옛 탐라국 시대 제주의 전통 농경문화와 공동체 의례 문화를 선보이는 이번 입춘굿은 '입춘맞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입춘대동'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우선 '입춘맞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입춘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입춘맞이'는 소원지 쓰기, 궁정 열명 올리기, 궁정 기원차를 올리기 등을 통해 한 해의 바람을 미리 전한다. 관덕정 광장과 제주목 관아에도 입춘 춘등과 낭쉴, 자청비 신상 조형물이 전시되고 관공서와 주요 거리, 상가 곳곳에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춘등이

걸려 제주의 봄을 부르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입춘맞이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소원지 쓰기와 궁정 열명 올리기는 이 기간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다음 달 2일에는 한 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주요 관공서 등 도내 기관에서 열린다. 이어 새봄맞이 거리굿을 비롯해 자청비 여신에게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제', 나무로 만든 '낭쉴'을 모시고 고사를 지내는 '낭쉴코사', 향아리를 깨뜨려 액운을 내보내고 풍을 뿌려 풍요를 기원하는 '사리살성',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액운을 떨치고 복을 기원하는 '신명풀이'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제주성안과 서귀포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입춘 성안기행을 비롯해 칠성신에게 풍요를 비는 '칠성비뎀', 붉은 말의 기운을 지닌 병오년의 상징성을 담은 입춘 휘호 퍼포먼스, 공연 마당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으로 생명력과 풍농을 의미하는 용비늘 문양을 낭쉴에 적용해 농경제의 의미를 강화하고,



지난해 '2025 탐라국입춘굿'

제주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입춘성안기행과 함께 '서귀포의 신성을 찾아'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주도 전 지역으로 넓힌다.

4일 입춘일에 열리는 입춘굿은 조감제, 자청비놀이, 말놀이·세경놀

이, 입춘굿탈놀이, 허맹이답소리 마누라배송 등 입춘대동이 운영된다.

한편 탐라국 입춘굿은 2024~2025년 2년 연속 제주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문화관광축제’로 이어지지 못한 탐라문화제

제주 유일 예비 단계
평가 결과 지정 고배

제주 대표 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전국 27개 축제를 선정했다.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 20개 축제를 재지정했고 7개 축제는 새로 선정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

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도내 지역 축제 중 유일하게 2024~2025년 예비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돼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신청 자격을 갖춘 탐라문화제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른 축제에 비해 점수가 낮아 문화관광축제 지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소정기자

그림으로 만나는 도서관
탐라도서관 겨울프로그램

탐라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그림으로 만나는 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읽기로 만나는 이야기 ▷우리 그림 케데헌 되어 세상을 날다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정별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예비 초등학생 1~2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읽기로 만나는 이야기'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자

신의 생각과 말을 글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다.

'우리 그림 케데헌되어 세상을 날다'는 예비 초등 3~4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화 기법을 이해하고 실제 그려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 속 캐릭터 '더피'(호랑이)와 서씨(까치)의 모티브가 된 전통 민화 호작도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는 탐라도서관(064-728-8374).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124)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박다래

주유소가 교회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유소 땅 아래 기름 탱크
그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주유소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왜 옳지 않은지 설명할 때

처마 아래
흰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다

흐르는

피죤 밀크

이제 교회가 되어버린 주유소에서

기도하는 동안
몇 번이고

가스등이 꺼졌다 켜졌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부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성경에서 예수를 뜻하는 말



삽화=배수연

흔한 게 주유소와 교회이다. 둘 다 그 자체로는 나쁠 게 없으며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주유소와 교회로 빚댄 상반된 욕망과 힘은 인간과 인간을 에워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다. 서로 '기름'을 가지고 있는 두 주제 중 어떤 기름이 인간의 존속에, 어떤 기름이 인간의 종말에 관심을 가질까. 주유소가 교회가 된다 해도, 교회가 주유소가 된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와 주유소를 구분하려 들지도 않겠지. 어느 쪽도 끄지 않으려는 불,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기름을 태우지만 그 기름이 무엇인지 과연 알아차릴 수 있을까. 시는 심지어 주유소가 없어진 자리에 교회가 들어선다 해도 “주유소 땅 아래 기름탱크/그 기름이 다 탈 때까지/ 주유소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고(告)한다. 정화를 상징하는 교회 밑에는 죄악의 불길의 타오르고 그 불길은 종말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누군가의 기도는 어떤 '부재'를 찾는, 심령이 가난한 또 한 편의 시일 것이다.

<시인>

2026년 새해 첫 할인!

노비타 비데 최대 특가!

새해 시작은 노비타와 함께 하세요! +

2025. 12. 29. ~ 2026. 2. 28.

무료 설치 | 무료 수거 | 비데 필터 증정 (2개)

기간 한정 이벤트

전국 대리점 단독 노비타 비데 보상판매

2025. 12. 29. ~ 2026. 2. 28.

자세히 보기 ▲

- 노비타 비데 특별할인가제용 사용 비데 반납시
- 무료수거, 무료 설치
- 비데 필터 증정 (2개)

모델명	가격	특징
살균비데 리모컨형 BD-H700HO	359,000원	6만원 할인, #리모컨, #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다이나믹무브, #회전노즐, #강력방수(IPX5)
살균비데 일반형 BD-H500EO	285,000원	5만원 할인,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라인핏비데 BD-AFESON	229,000원	7만원 할인, 3년 무상 A/S, #슬림디자인, #공기방출세정, #강력방수(IPX5/조작부는 IPX7)
더블 살균비데 BD-DHS8-010RA	429,000원	5만원 할인, 3년 무상 AS, #3년무상AS, #리모컨, #UV노출살균, #하루두번전체살균, #순간직수가열, #강력방수(IPX5/조작부는 IPX7)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BD-GCS4-03ERA	249,000원	4만원 할인, 3년 무상 AS, #리모컨, #3년무상AS,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슬림비데 컴팩트 일반형 BD-DCS4-03SB	219,000원	2만 5천원 할인,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구입문의 |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터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터 064)758-0990~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신광로터리 ● 빈스 ● 옥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린나호텔

상설 서비스센터 WINIX novita ● 공항